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암

장대업(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 Asian Labour Review 편집위원장.¹⁾)

*이 글은 2026년 6월 27일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위해 작성되었음.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의 전망을 그리는 작업은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로 이해되어 온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노동에 대한 재조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아시아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가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이다. 자본주의가 민주화 된다면 그 “민주”의 주인이 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한다. 21세기 첫 20년이 끝날 무렵에는 세계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며 일하고 있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에만 동아시아의 노동력은 약 7억 6,400만 명에서 12억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²⁾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규모와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노동에 대한 관심은 동아시아와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역사 서술 속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2. 초기 동아시아 연구는 주로 경제적·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고 간주된 동아시아 사회의 저발전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발전은 하나의 보편적 경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고, ‘타자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발전의 원형과 비교되면서 성공과 실패사례로 분류되었다.³⁾

이후 일본,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NIEs), 그리고 중국에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찬양받게 되었고, 동아시아에 대한 학술적·대중적 이해는 ‘글로벌 공장(global factory) 문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구 흐름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발전국가론, 수출지향 산업화 연구,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연구들은 모두 동아시아가 어떻게 세계적 축적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기여해왔다.⁴⁾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이를 ‘아시아의 부활’로 규정하며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의 도래를 예견하기도 했다.⁵⁾

1) <https://labourreview.org/>

2) 반면, 유럽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10%, 북미는 약 5%만을 차지한다. <https://ilostat.ilo.org/topics/population-and-labour-force/>

3) 이에 대한 비판은 Berger, “Yellow Mythologies: The East Asian Miracle and Post-Cold War Capitalism”; Berger, The Battle for Asia: From Decolonization to Globalization; Cumings, “We Look at It and See Ourselves: Fantasies of Korea · LRB”; Nilsen, “Thinking Capitalist Development Beyond Eurocentrism”; Ravi Arvind Palat, “Beyond Orientalism: Decolonizing Asian Studies,” Development and Society 29, no. 2 (2000): 105-35.

4) 고전적인 개발국가 문헌은 다음을 참조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ggard, Stephen.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이러한 연구들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유럽중심적이다. 왜냐하면 그 핵심 관심이 서구 자본주의의 제도들이 동아시아 주변부에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는지, 혹은 동아시아라는 타자가 자본주의로 가는 '정상 경로'와는 다른 평행우주를 만들어내고 서구에 대한 문명적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⁶⁾ 동시에 이들은 철저히 자본중심적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산업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시장이 국민국가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노동은 이러한 서사 속에서 생산요소, 정책 변수, 혹은 발전의 수동적 수혜자로만 등장한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부상을 떠받친 가장 중차대한 사회적 변화, 즉 이 지역에서 세계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동인구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적은 관심만을 받아왔다.

4. 이러한 인식론적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상 이후 지배적이었던 동아시아 '주변부'에 대한 기존 역사 서술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동아시아를 극동(Far East), 동아시아(East Asia),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인도차이나(Indo-China)와 같은 관습적인 지역 구분을 통해 보는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범주들은 아시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아시아를 그 주변적 타자로 위치시킨 제국주의적 지도 그리기와 지식 생산의 산물이었다.⁷⁾ 오늘날 흔히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 끝자락으로 한정되는 '동아시아'라는 범주 자체도 식민주의적 지식 생산과 냉전 지정학에 뿌리를 둔 유럽·미국 중심의 지도 제작과 명명 관행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분류는 아시아 동부 지역에 존재해 온 오랜 상업적, 노동적, 사회적 연계와 공통 경험들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인 동아시아를 자명한 장소 단위로 전제하는 대신, 이를 아시아의 동 반구(eastern hemisphere of Asia)라는 사회적 지리 개념을 통해 재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오늘날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되며, 이들 사회와 경제는 역사적으로 노동과 사회적 변동의 공통된 궤적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이러한 '더 큰 동아시아(larger East Asia)'에 주목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세계자본주의 형성의 중심 무대에 위치시킴으로써, 동아시아를 세계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또한 도전받아 온 핵심 공간으로 사고하는 것이 동아시아를 세계자본주의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의 대륙으로 보는 관점이다.

5. 동아시아를 노동의 대륙으로 사유하고,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 이해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다.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 이해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분석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노동의 관계를 이해해 온 기존의 역사 서술 전체를 다시 쓰는 일이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5) Mahbubani, Kishore. 2009.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 Affairs; Mason, Andrew. D. and Shetty, Sanjay. 2019. *A Resurgent East Asia: Navigating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World Bank.

6)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닌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하고있다는 아리기의 스미스주의적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Arrighi 2007).

7) Donald K. Emmerson,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 no. 1 (1984): 1-21; Charles Holcombe, *A History of East Asi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Hui Wang, "A New Way to See World History: An Asia That Isn't the East," *Le Monde Diplomatique*, 2005.

민주주의, 노동의 삼각관계의 역사는 서유럽과 북미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 이 서술 속에서 서구의 자유임금노동, 제도화된 노동조합, 단체교섭, 복지국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이 언젠가 도달해야 할 '정상적' 형태로 제시되었다. 반대로 아시아의 노동은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이며, 미조직적이고,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노동, 혹은 근대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이해되어 왔다.

6.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세계자본주의의 실제 역사를 거꾸로 바라보게 만든다. 세계자본주의는 결코 안정된 자유임금노동만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노예노동, 식민지 수탈, 강제노동, 농민의 토지 박탈, 여성의 무급 재생산노동, 이주노동, 비공식 노동에 의존해 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권리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자유임금노동에 의존해 왔다. 이 다양한 노동 형태들은 서로 분리된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총체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를 조건 지어 왔다. 따라서 문제는 어떤 노동이 더 '진짜' 자본주의 노동인가가 아니다. 오히려 물어야 할 것은 왜 우리는 오랫동안 특정한 형태의 노동, 즉 전후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확립된 서구의 안정적 자유임금노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치적 형태만을 규범적 모델로 간주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7. 바로 여기에 근대화론적 인식론의 문제가 있다. 근대화론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경로를 인류 보편의 미래로 상정하고, 비서구 사회를 그 미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과거로 배치한다.⁸⁾ 이들 속에서 유럽과 북미의 노동은 발전된 노동이고, 아시아의 노동은 정체된 노동이다. 서구의 노동조합은 성숙한 노동운동의 모델이고, 아시아의 산발적 파업과 비공식적 저항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미완의 운동으로 취급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보편적 규범이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예외적이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간주 된다. 근대화론과 그 역사주의적 상상 속에서, 심지어 아시아의 많은 노동 '전문가'들—연구자와 활동가 모두—도 서구만을 바라보며 유럽과 북미에서 모델을 찾고, 유럽·미국의 거울에 비친 '못생긴' 아시아 노동의 모습을 한탄해 왔다. 그러나 어쩌면 아시아 노동운동이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식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시아의 과거는 북반구의 거울에 비추어진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며, 아시아 노동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한다.

근대화론적 인식론은 아시아에 대한 19세기적 인식들에 그 기원을 가진다. 이 인식은 근대 초기에 형성되어 식민지 시대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전통과 근대의 시간적 단절(temporal rupture), 서구와 나머지 세계의 공간적 구분이라는 사회과학의 정통 세계관으로 굳어졌다.⁹⁾ 19세기적 인식들이란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의 아시아관이었다. 이 관점 속 아시아는 내적 역동성이나 역사성이 없는 정체적 공간이자, 시간 속에 얼어붙은 사회로 묘사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베르니에, 몽테스키외, 헤겔로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받은 이 관점은 아시아를 피상적 자연·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척박한 토양, 거대한

8) Walt Whitman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2, no. 1 (1959): 1-16; Walt Whitman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Dipesh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9) Bhambra, Gurinder. 2007. *Rethinking modernity: Postcolonialism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Springer.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집권 국가의 필요성, 절대 국가권력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목가적 농촌 공동체, 자유의 부재, 국가의 토지 독점, 사유지의 부재,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씨앗’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¹⁰⁾

이러한 광범위하고 억지스러운 일반화 속에서 터키, 페르시아, 인도, 중국 같은 다양한 사회들은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범주 아래 묶였고, 이 틀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는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었다. 19세기 유럽 사상가들은 이렇게 재해석된 아시아 사회들을 인류 문명의 단선적 위계질서에서 최하위에 배치했다. 그 정점에는 자본주의 유럽이 위치했다. 이 오래된 유럽중심주의, 이를 계승한 근대화론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까지 규정해 왔다.

8. 이러한 일련의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예외없이 발견된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임금노동이 유럽에서 시작해 유럽 내부의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이후 비유럽 세계의 ‘전통적’ 사회관계를 대체하며 확장되었다고 보는 유럽중심적 자본주의 확산론(diffusionism)이 대표적이다. 이 확산론은 블라우트(Blaut)가 “터널 시야(tunnel vision)”라 부른, 유럽 외부 세계의 역사가 유럽 내부의 변화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¹¹⁾ 예컨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로버트 브레너(Robert Brenner)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하나의 지리적 지역-영국 농촌”에서 찾는다.¹²⁾ 그곳에서 농민들의 ‘절반의 성공’에 그친 계급투쟁이 농노제와 독립 소농을 모두 해체했고,¹³⁾ 그 결과 지주-자본가 소작인-농업 임노동자로 구성된 삼분 농업 체제가 등장하여 대규모 농업 운영, 자본투입, 기술혁신을 촉진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이 다른 유럽 지역이나 세계의 사회경제 공동체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농업 자본주의를 형성했다는 것이다.¹⁴⁾ 브레너에게 자본주의의 핵심 표지는 바로 노동이 상품이 되는 ‘자유 임노동 체제’이다.¹⁵⁾ 브레너의 설명에서 영국의 자본주의 전환은 철저히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세계시장은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전환기에 외부 수요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¹⁶⁾ 이는 영국만을 위한 특수 조건이 아니라 유럽경제의 보편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발생하여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했던 계급·사회 생산관계”에 비해 부차적이었다.¹⁷⁾ 따라서 그의 역사서술 속에서 아프리카, 라

10) Anderson, Perry. 2013.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Verso, 462-472; Cumings, Bruce. 2005. "We look at it and see ourselves: Fantasies of Korea". *London Review of Books*; Wang, Hui. 2005. "A New Way to See World History: An Asia that Isn't the East." *Le Monde Diplomatique* February 2005, <https://mondediplo.com/2005/02/02asia>.

11) James M. Blaut, "Colonialism and the Rise of Capitalism," *Science & Society* 53, no. 3 (1989): 260-96; James M. Blaut,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Geographical Diffusionism and Eurocentric History*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1993).

12) Anievas and Nişancioğlu 2015, 23. 브레너의 확산론은 Brenner, Robert. 1977.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New Left Review*, 1(104): 25-92; Brenner, Robert. 1985a.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In Aston, T. and Philpin, C. (eds.) *The Brenner Debate: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63; Brenner, Robert. 1985b. "The agrarian roots of European capitalism." In *The Brenner debate: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edited by T. Aston and C. Philpin, pp. 213-3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참조.

13) Brenner 1977, 76

14) Brenner 1985a, 49.

15) Heller, Henry. 2011. *The birth of capitalism: A twenty-first-century perspective*. London: Pluto Press, 84.

16) Brenner 1977, 76.

틴아메리카, 아시아의 노동이 유럽 자본주의 성립 이전과 이후에 수행한 수탈된 노동은 “진정한” 자본주의적 노동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탄생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도 아니다. 이 자본주의 단일 기원(single-origin) 이론은 글로벌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다양한 노동 형태들을 분리시킬 뿐 아니라, 지리·인종·발전단계에 따라 동일한 역사적 순간을 살아가며 노동했던 이들 사이에 위계적 구분을 만들어낸다.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전근대적 수탈 노동’과 ‘근대적 착취 노동’ 사이의 암묵적 위계는, 오늘날 주변부의 ‘비정상적’ 노동이 ‘저발전’을 낳고 핵심부의 ‘정상적’ 산업노동이 ‘발전’을 낳는다는 서술 속에서 재생산된다.

9. 마르크스주의의 유럽중심적 시각은 부분적으로는 분명 19세기적 인식틀의 영향을 받았던 마르크스의 책임이다. 『공산당 선언』(1848)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중국의 “장벽”이 부르주아 상품의 “값싼 가격”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¹⁸⁾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859)에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생산양식 발전의 가장 원시적인 단계로 위치시켰다.¹⁹⁾ 또한 그는 중국을 “미신적 신앙”과 “은둔적 고립”의 사회로,²⁰⁾ 인도를 “역사가 전혀 없는” 정체된 사회로 묘사하며,²¹⁾ 영국 식민주의가 이들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파편적 증거와 과도한 일반화에 기초한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19세기 유럽의 통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들은 비유럽 세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는 제국주의적 폭력이 진보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부르주아 문명의 내재적 야만성”을 비판하기 시작했다.²²⁾ 더 중요한 변화는 그가 미국 남북전쟁과 식민주의를 다루면서 노예제와 식민지 수탈이 유럽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조건이었음을 인정했고, 『자본』에서는 식민적 수탈을 유럽 자본축적의 필수적 전제로 분석했다는 점이다.²³⁾ 또한 반식민 투쟁을 유럽 혁명의 잠재적 촉발 요인으로 평가했고,²⁴⁾ 주변부 사회가 유럽과 동일한 발전 경로를 따르지 않고도 다른 사회적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²⁵⁾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더 이상 식민주의를 생산력을 확산시키는 역사적 수단으로 보거나 식민지 민중을 수동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았다. 태평천국운동(1850~1864)과 세포이 항쟁(1857~1859) 등 아시아 민중의 대규모 저항이 그에게 아시아인들이 전제주의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자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해방의 가능성을 자본이 아니라 저항하는 노동대중 속에서 찾도록 만들었으며, 그의 인식론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0. 또한 중요하게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자유 임금노동과 수탈받는 노동 사이에 위계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 제1권 후반부에서 그는 유럽 내부와 외부에서 자본

17) Brenner 1977, 76.

18)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1998 [1848]. The communist manifesto. London: Verso, 39-40.

19) Marx, Karl. 1971 [1859].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21.

20) Marx, Karl. 1853. “Revolution in China and in Europe.” In Karl Marx-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MECW), Vol. 12: 93-100, 94.

21) Marx, Karl. 1853. “The future results of British rule in India.” In Karl Marx-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MECW), Vol. 12: 217-222, 217.

22) Marx, Karl. 1853b, 221.

23) Anderson, Kevin. 2010. Marx at the margins: On nationalism, ethnicity, and non-Western societ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7-188.

24) Anderson 2010, 144.

25) Anderson 2010, 229.

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동원된 폭력과 수탈의 현실에 주목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마르크스는 영국의 상대적 과잉인구, 저임금 노동자, 유랑민, 빈민, 농촌 이주민 등의 삶을 묘사하며, 수탈(expropriation)이 자본주의 이전의 유산이나 식민지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축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자본주의의 동시대적 구성 요소임을 보여준다.²⁶⁾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비참의 축적”과 “노동의 고통”이 공존하는 체제였다.²⁷⁾

이러한 분석은 임노동의 해부에 집중된 『자본』의 논리적 전개를 자본주의의 실제 역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르크스가 암시하듯, 자본주의 하의 노동은 착취와 수탈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유 임금노동은 그 스펙트럼의 한 형태일 뿐이다. 자이러스 바나지(Banaji)가 지적하듯, 자본주의는 단일한 노동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 총체이며, 현실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노동 형태들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자유 임금노동만으로 이루어진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 수탈과 착취를 결합하는 세계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파텔(Patel)과 무어(Moore)가 지적하듯, 영국 산업혁명의 임금노동자들은 미국 플랜테이션의 노예노동에 의존했고,²⁸⁾ 유럽의 자본축적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노동자들의 수탈과 분리될 수 없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서로 다른 노동 형태들이 분리되어 발전한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노동의 대륙’들이 동시에 그리고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세계자본주의를 구성해 온 역사였다. 노동의 대륙(Continent of Labour) 관점은 “주변부”, 특히 가장 큰 노동의 대륙 동아시아의 방대한 노동력이 식민지 수탈, 냉전기 산업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반에 걸쳐 수행한 모순적 역할—즉, 글로벌 자본주의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도전하면서 그 방향을 형성해 온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11. 이렇게 동아시아를 ‘노동의 대륙’으로 바라보면, 더구나 세계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노동의 대륙임을 인정한다면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의 위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아시아 노동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동시적이고 불균등한 (simultaneous and uneven) 형성과정속에서 구성적 요소로 참여하였고 동아시아는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가 형성되고 확장되고 재편되고 도전받아 온 핵심 공간이다. 식민주의는 동아시아 노동의 착취와 수탈을 통해 식민지 초과이윤을 창출하고, 동아시아의 화폐경제를 확대하며, 지역적 생산관계를 파괴했다.²⁹⁾ 초기 식민지 이윤은 다양한 식민지 수탈·작물재배 체제하에서 자영농들에게서 잉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³⁰⁾ 식민지 지배가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영세농의 토지와 노동 수탈, 플랜테이션·광산에 결박된 이주노동자들의 수탈, 제한적 식민지 공업시설의 임금노동자 착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되었다.³¹⁾ 동아시아 노동자들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의 산업 확장을 떠받치고 서

26) Marx 1990, 794.

27) Marx 1990, 799.

28) Patel, Raj, and Jason W. Moore. 2017. A history of the world in seven cheap things: A guide to capitalism, nature,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01-104.

29) Elson, Robert E. 1992. The politics of colonial exploitation: Java, the Dutch, and the cultivation system.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me; Fasseur, Cornelis. 1986. “The Cultivation System and its Impact on the Dutch Colonial Economy and the Indigenous Society in Nineteenth-Century Java.” In C. A. Bayly and D. H. A. Kolff (eds.), Two Colonial Empires: Comparative Essays on the History of India and Indonesia in the Nineteenth Century (pp. 137-154).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30) Breman, Jan. 1983. Control of land and labour in colonial Java. Dordrecht: Foris Publication; Elson, Robert E. 1997. The end of the peasantry in Southeast Asia: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peasant livelihood, 1800-1990s. Basingstoke: Macmillan.

31) Breman, Jan. 1989. Taming the collie beast: Plantation society and the colonial order in South East

구 소비자의 제국적 생활양식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토대 역할을 했다. 냉전기 산업화 시기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의 노동은 미국·유럽 시장을 위한 값싼 소비재 생산을 통해 글로벌 북반구의 전후 호황을 함께 구성했다. 대부분의 탈식민지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식민지 유산에 기반한 1차 상품 생산에 머무르는 동안, 대만·싱가포르·한국·홍콩 등 신흥공업국 노동자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아래에서 신설된 수출 제조업체들을 위해 노동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특히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 노동자를 혹독하고 위험한 노동과정에 복종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긴 노동시간, 참혹한 작업환경, 저임금에 시달렸다. 수십만 명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교육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러한 노동체제가 1980년대 민주화 이전까지 동아시아 산업화를 지배했고, 북반구 전후 호황과 소비자-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지의 방대한 노동력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편입되면서 세계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관리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특히 중국은 수출지향 산업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동아시아계 초국적 기업들에 수천만 농촌 이주노동자를 공급하며 1998~2007년 연평균 10% 성장했고, 동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중국의 수출산업은 값싼 소비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저소득층의 생계 또한 지탱했다.

12. 따라서 동아시아 노동은 뒤쳐진 노동도, 주변적 노동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의 과거를 가능하게 했고 현재를 작동시키는 중심적 노동이다. 이 관점은 민주주의의 역사 또한 새롭게 보게 만든다. 오랫동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서유럽과 북미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경제성장, 산업화, 중산층과 시민사회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정치적 동반자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는 식민지 지배, 개발독재, 군사정권, 일당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결합하면서 성장해 왔다. 동아시아의 경험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없이도, 때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도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발전국가의 산업화는 노동권의 억압과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때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동반했지만 여전히 노동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시장과 기업의 권력에 종속시켰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따라온다는 명제는 동아시아의 역사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13. 역으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과정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노동대중이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에 맞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헌법, 선거, 정당, 의회, 시민권의 문제로 이해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대중이 공장과 거리에서, 농촌과 도시에서, 식민지 권력과 개발독재와 군사정권, 신자유주의 국가에 맞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투쟁의 역사였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은 서구의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유럽과 북미의 민주주의 전환은 제국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tta, Anindita. 2021. *Fleeting agencies: A social history of Indian coolie women in British Malay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ur, Amarjit. 2004. "Labour dynamics in the plantation and mining sector." In Becky Elmhirst and Ratna Sapptari (eds.), *Labour in Southeast Asia: Labour processes in a globalised world*, London: RoutledgeCurzon; Wolf, Eric. R.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주의를 통해 수백 배 많은 주변부 노동대중을 가장 비민주적인 식민통치에 몰아넣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식민지 초과이윤이라는 분배정의의 물질적 기반이라는 외적 조건이 안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요구와 맞물린 결과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민주화는 이렇게 위로부터 주어진 유리한 조건 없이 노동대중의 투쟁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성과였다. 식민지 동아시아의 노동자들은 침묵하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아시아인들은 지금도 식민지 민중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 노동자들은 잔혹한 제국주의 권력에 맞서 싸웠다.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공동체에는 반제국주의적 노조·농민조직을 결성하고 식민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역사가 있다. 대륙 곳곳의 지역사회는 강력한 제국들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종식시키고 독립을 획득한 성공의 경험을 공유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투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주변부적 성격에 저항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 노동자들 역시 개발 신화가 묘사한 ‘산업전사’의 역할에만 충실하지 않았고, 그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건설자이기도 했다. 폭력적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저항과 함께 노동조합과 비밀결사들은 계속 등장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노동자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요구하기 시작했고, 개발국가 이론가들이 지금도 칭송하는 가장 잔혹한 두 개발독재 체제에서 민주화를 주도했다. 한국과 대만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은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³²⁾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은 수하르토 체제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운동과 노동정치를 만들어냈다.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들은 동아시아에 ‘장기적 반민주주의 전통’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민주화 이후 빠르게 제도정치에서 배제되기는 하였지만 민주화의 단순한 보조 세력이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 균열을 낸 핵심 행위자였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198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 이어진 민주주의의 확장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집단적 저항 속에서 형성된 미완의 프로젝트로 드러난다.

14. 동아시아의 민주화가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은 이유 역시 노동의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노동인구를 보유한 최대의 노동의 대륙이 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엔진이 되었지만, 동시에 노동의 비공식화, 불안정화, 이주화, 플랫폼화, 성별화, 세대적 분절이 가장 광범하게 전개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노동자는 많아졌지만 노동의 집단적 힘은 자동적으로 커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조직되고, 생산은 초국적으로 통합되며, 노동자는 국적, 체류 자격, 성별, 산업, 고용 형태에 따라 분리된다. 세계 최대의 노동의 대륙은 동시에 가장 깊이 분절된 노동의 대륙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동아시아 발전의 노동 역설이다. 이 역설은 현재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된다. 노동이 파편화될수록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약해진다.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성을 잃고,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로 축소되었다. 선거는 유지되지만 경제적 권력은 민주적 통제 밖에 남게 되었다. 의회는 존재하지만 생산, 투자, 고용, 주거, 돌봄, 기술,

32) Chang, Dae-oup. 2022. “Korean labour movement: The birth, rise and transformation of the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In Sojin Lim and Niki J.P. Alsford (eds.), Routledge handbook of contemporary South Korea (pp.159-174). London: Routledge; Hsiao, Hsin-Ming. 1992. “The labor movement in Taiwa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look.” In Denny Roy Simon and Michael Y. M. Kau (eds.), Taiwan: Beyond the economic miracle. Armonk, NY: M. E. Sharpe; Koo, Hagen. 2001. Korean workers: The cultural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inns, John and Robert Tierney. 2003. “The labour movement in Taiwan.” Labour History, 85: 103-128.

생태 전환에 관한 결정은 자본과 국가 관료, 초국적 기업, 금융시장의 손에 맡겨졌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가권력을 선거로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적 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작업장으로, 지역사회로, 돌봄의 영역으로, 생산과 투자 결정으로, 기술과 생태 전환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형식에 머물고, 민주주의 없는 노동은 자본의 지배 아래 파편화된다. 이것이 수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쉽게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국가주의로 후퇴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심화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 노동의 분절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15.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는 동아시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동맹의 종말을 알렸으며,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장기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다.³³⁾ 미국이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반면, ³⁴⁾ 중국은 자본의 과잉축적과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공간적 해결(spatial fix)’을 모색하며 점점 더 팽창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³⁵⁾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지배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곧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신자유주의의 장기적 쇠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반쯤 죽은 좀비와 같은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반쯤 죽은’ 신자유주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인터레그넘(interregnum)’, 즉 “낡은 것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상태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Fraser 2023; Stahl 2019; Nilsen 2023; Sinha 2021).³⁶⁾ 이 인터레그넘 속에서 세계는 쇠퇴하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점차 노동대중의 희생 위에 지배 엘리트의 권력을 복원하려는 보다 노골적인 계급 프로젝트로 퇴행적으로 변형되고 있다. ³⁷⁾ 공정성, 민주주의, 참여, 굿 거버넌스라는 수사

33) Ho-fung Hung, *Clash of Empires: From “Chimerica” to the “New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https://doi.org/DOI:%252010.1017/9781108895897>.

34) Nancy Fraser, “From Progressive Neoliberalism to Trump—and Beyond,” *American Affairs* 1, no. 4 (2017).

35) Pádraig Carmody, Ian Taylor, and Tim Zajontz, “China’s Spatial Fix and ‘Debt Diplomacy’ in Africa: Constraining Belt or Road to Economic Transformation?,” *Canad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 Revue Canadienne Des Études Africaines* 56, no. 1 (2022): 59, <https://doi.org/10.1080/00083968.2020.1868014>.

36)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8), 276.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인터레그넘에 대한 논의는 Fraser, *Cannibal Capitalism: How Our System Is Devouring Democracy, Care, and the Planet and What We Can Do About It*, 20; Alf Gunvald Nilsen, “Emerging Power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outhern Interregnum*,”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52, no. 2 (May 2025): 233–56; Subir Sinha, “‘Strong Leaders’, Authoritarian Populism and Indian Developmentalism: The Modi Moment in Historical Context,” *Geoforum* 124 (August 2021): 320–33; Rune Møller Stahl, “Ruling the Interregnum: Politics and Ideology in Nonhegemonic Times,” *Politics & Society* 47, no. 3 (2019): 338.

37) Ian Bruff, “The Rise of Authoritarian Neoliberalism,” *Rethinking Marxism* 26, no. 1 (January 2014): 11–3–29, <https://doi.org/10.1080/08935696.2013.843250>; Ian Bruff and Cemal Burak Tansel, “Authoritarian Neoliberalism: Trajectories of Knowledge Production and Praxis,” *Globalizations* 16, no. 3 (2019): 233–44; Kanishka Jayasuriya, “Authoritarian Statism and the New Right in Asia’s Conservative Democraci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8, no. 4 (2018): 584–604; Cemal Burak Tansel, “Authoritarian Neoliberalism: Towards a New Research Agenda,” in *States of Discipline: Authoritarian Neoliberalism and the Contested Reproduction of Capitalist Order*, ed. Cemal Burak Tansel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7), 1–28.

가 점차 폐기되는 가운데, 그 공백을 권위주의가 채우고 있다. 이러한 보다 강압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불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살아남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경제성장과 국가 재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노동계급의 보다 취약한 계층을 포섭하고, 이를 통해 계급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속화하고 있다.³⁸⁾

16. 이러한 인터레그넘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역설’에 대응해 온 끈질긴 탄력성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새롭게 등장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초기 투쟁은 종종 고립되었고, 기존 제도권 노동조직들의 연대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시아 노동자들은 “들꽃”과 같은 노동운동(wild-flower labour activism)-전통적 노동조합의 좁은 대표성 바깥에 놓인 주변화된 이들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저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위자성을 발휘해 왔다. 들꽃 노동저항은 공식·비공식 경제 전반, 농촌과 도시를 가로질러 등장한다. 이러한 저항은 탄압 속에서 들꽃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피어나기를 반복한다. 종종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순간에는 강력한 변혁적 잠재력을 지닌다. 비교적 개방된 사회에서부터 군사독재 체제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들꽃 노동운동의 특징은 바로 그 보편성과 회복력에 있다.³⁹⁾

동아시아의 들꽃 노동운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조직화,⁴⁰⁾ 홍콩의 청년 시위와 노동조합 조직화,⁴¹⁾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

38) Aim Sinpeng, *Opposing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The Yellow Shirts in Thailan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1); Thongchai Winichakul, “Toppling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 no. 1 (February 2008): 11–37; Teri L. Caraway, “Labor’s Reversal of Fortune: Contentious Politics and Executive Aggrandizement in Indonesia,” *Social Movement Studies* 22, no. 5/6 (2023): 689–705; Marcus Mietzner, “Authoritarian Innovations in Indonesia: Electoral Narrowing, Identity Politics and Executive Illiberalism,” *Democratization* 27, no. 6 (August 2020): 1021–36; Edward Aspinall and Marcus and Mietzner, “Indonesia’s Democratic Paradox: Competitive Elections amidst Rising Illiberalism,”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5, no. 3 (September 2019): 295–317; Francisco A. Magno and Martin Josef E. Vivo, *Horizontal Accountability at Risk: Executive Aggrandizement in the Philippines* (East Asia Institute, 2023), <http://adnresearch.org/publications/list.php?at=view&idx=313>; Björn Dressel and Cristina Regina Bonoan, “Southeast Asia’s Troubling Elections: Duterte Versus the Rule of Law,” *see c.* 134, *Journal of Democracy* 30, no. 4 (2019): 134–48; Mark R. Thompson, “Pushback after Backsliding? Unconstrained Executive Aggrandizement in the Philippines versus Contested Military-Monarchical Rule in Thailand,” *Democratization* 28, no. 1 (January 2021): 124–41; Nyarwi Ahmad, “The Four Faces of Authoritarian Populism and Their Consequences on Journalistic Freedom: A Lesson Learnt From Indonesia’s 2019 Presidential Election,” *TRaNS: Trans-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10, no. 2 (2022): 189–201; Nicole Curato, “Flirting with Authoritarian Fantasies? Rodrigo Duterte and the New Terms of Philippine Popu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7, no. 1 (2017): 142–53; Nilsen, “Emerging Power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outhern Interregnum”; Inaya Rakhmani and Muni nggar Sri Saraswati, “Authoritarian Populism in Indonesia: The Role of the Political Campaign Industry in Engineering Consent and Coercion,”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40, no. 3 (2021): 436–60; Dae-oup Chang, “Authoritarian Neoliberalism in South Korea: Origins and Historical Conjunct ures,” *Globalizations*, November 4, 2025, 4, <https://doi.org/10.1080/14747731.2025.2579338>.

39) Chang, Dae-oup. “Asian Labour Movements in the Age of Decaying Neoliberalism.” *Asian Labour Review*, 2022. <https://labourreview.org/challenges-to-the-asian-labour-movements/>.

40)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MRC), *A Week That Shook Cambodia: The Hope, Anger and Despair of Cambodian Workers after the General Strike and Violent Crackdown* (2014), http://www.amrc.org.hk/sites/default/files/FFM-Cambodia-Report-022014-amrc_0.pdf; Dennis Arnold, “Civil Society, Political Society and Politics of Disorder in Cambodia,” *Political Geography* 60 (2017): 23–33; Chang, “Transnational Labour Regimes and Neo-Liberal Development in Cambodia.”; Anna

여,⁴²⁾ 인도네시아의 거리 시위와 작업장 점거, 파업,⁴³⁾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⁴⁴⁾ 중국과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와일드캣 파업,⁴⁵⁾ 대만과 중국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활동,⁴⁶⁾ 그리고 태국의 빈민운동과 청년 반군부 시위 등이 권위주의 재부상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들꽃노동저항의 사례이다.⁴⁷⁾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다양하다. 어떤 투쟁은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Salmivaara, "New Governance of Labour Rights: The Perspective of Cambodian Garment Workers' Struggles," *Globalizations* 15, no. 3 (2018): 329-46.

- 41) Loong Yu Au, *Hong Kong in Revolt: The Protest Movement and the Future of China* (London: Pluto Press, 2020).
- 42) Dennis Arnold and Stephen Campbell, "Labour Regime Transformation in Myanmar: Constitutive Processes of Contestation," *Development and Change* 48, no. 4 (2017); Stephen Campbell, "In Post-Coup Myanmar, Workers Assert Workplace Democracy amid Suspension of Electoral Rule," 18 July 2022, *Asian Labour Review*, July 18, 2022, <https://labourreview.org/in-post-coup-myanmar-workers-assert-workplace-democracy-amid-suspension-of-electoral-rule/>; Cheria Ma and Maung Ko, *Against All Odds: Workers' Resistance in Post-Coup Myanmar*, Issue Paper No. 42 (Jeonju, Korea: JISEA, 2025), 3, https://jiseas.jbnu.ac.kr/CrossEditor/binary/files/000018/JISEAS_Vol42_final.pdf.
- 43) Abu Mufakhir, "Alliances of Labour Unions as the Backbone of General Strikes in Indonesia," in *Resistance on the Continent of Labour: Strategies and Initiatives of Labour Organizing in Asia*, ed. Panimbang, Fahmi (Hong Kong: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2017); Fahmi Panimbang and Abu Mufakhir, "Labour Strikes in Post-Authoritarian Indonesia, 1998-2013," in *Workers' Movements and Strik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lobal Perspective*, ed. Nowak, Jörg, Madhumita Dutta, and Peter Birke (London: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2018); Teri L. Caraway and Michele Ford, *Labor and Politics in Indo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Byoung-Hoon Lee, "Worker Militancy at the Margins: Struggles of Non-Regular Workers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5, no. 1 (2016): 1-37.
- 44) Aelim Yun, "Transportation Workers' Mobilization against the Gig Economy: Korea," in *Platform Labour and Global Logistics*, ed. Immanuel Ness (London: Routledge, 2023), 153-66; Kwang-Yeong Shin, "Globalisation and the Working Class in South Korea: Contestation, Fragmentation and Renewal,"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 no. 2 (May 2010): 211-29.
- 45) Joe Buckley, *Vietnamese Labour Militancy: Capital-Labour Antagonisms and Self-Organised Struggles* (London: Routledge, 2022); Angie Tran, "Vietnamese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in the Global Supply Chain: State Strategies and Workers' Responses," *Institutions and Economies* 4, no. 3 (October 2012): 123-50; Mark Anner and Xiangmin Liu, "Harmonious Unions and Rebellious Workers: A Study of Wildcat Strikes in Vietnam," *ILR Review* 69, no. 1 (2016): 3-28; Quynh Chi Do, "The Regional Coordination of Strikes and the Challenge for Union Reform in Vietnam," *Development and Change* 48, no. 5 (2017): 1052-68; ITUC/GUF Hong Kong Liaison Office,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Strike in Honda and the Auto Parts Industry in China* (2010), 20-22, <https://intercoll.net/A-Political-Economic-Analysis-of-the-Strike-in-Honda-and-the-auto-parts>; Pak Nang Leung and Ngai Pun, "The Radicalisation of the New Chinese Working Class: A Case Study of Collective Action in the Gemstone Industry," *Third World Quarterly* 30, no. 3 (April 2009).
- 46) Ming-sho Ho, "From Unionism to Youth Activism: Taiwan's Politics of Working Hours," *China Information* 34, no. 3 (November 2020); Chuang, "Three Autumn Revolts: Breaking the Ice on China's 'Anti-Lockdown Movement'"; Chuang, January 19, 2023, <https://chuangcn.org/2023/01/three-autumn-revolts/>; Eli Friedman, "Foxconn's Great Escape," *Asian Labour Review*, 2022, <https://labourreview.org/foxconn-s-great-escape/>; Simon Han and Jessica Song, "The Return of Strikes in China," *Features*, *Asian Labour Review*, June 4, 2024, <https://labourreview.org/strike-wave-china/>.
- 47) Chris Baker, "Thailand's Assembly of the Poor: Background, Drama, Reaction," *South East Asia Research* 8, no. 1 (2000): 5-29; Jim Glassman, "From Seattle (and Ubon) to Bangkok: The Scales of Resistance to Corporate Globaliz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 no. 5 (2002): 513-33; Bruce Missingham, "Forging Solidarity and Identity in the Assembly of the Poor: From Local Struggles to a National Social Movement in Thailand," *Asian Studies Review* 27, no. 3 (2003): 317-40; Akanit Horatanakun, "The Network Origin of Thailand's Youth Movement," *Democratization* 31, no. 3 (April 2024): 531-50; Duncan McCargo, "Disruptors' Dilemma? Thailand's 2020 Gen Z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 no. 2 (April 2021): 175-91; Wichuta Teeratanabodee, "Thailand's 2020-2021 Pro-Democracy Protests: Diversity, Conflict, and Solidarit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55, no. 1 (January 2025): 3-27.

어떤 투쟁은 기존 노동조합의 무관심 속에서 동력을 잃는다. 반면 일부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의 지원을 얻으면서 새로운 힘을 획득하기도 한다. 형태와 결과는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하다. 그것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자발적 조직화,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가 결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들꽃 노동운동은 분산되어 있고 자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때 동아시아의 불안정 노동계급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힘이 될 수 있다.

17. 이 점에서 동아시아 노동운동의 과거는 단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전략의 자원이다. 동아시아의 반식민 투쟁, 권위주의 국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과 조직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거리정치, 그리고 '들꽃'처럼 피어나는 비제도적 노동저항은 모두 민주주의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이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북반구 노동운동의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동아시아 노동이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저항하고 조직하고 연대해 왔는가이다. 제도화된 단체교섭만이 노동정치의 정상적 형태가 아니다. 와일드캣 파업, 점거, 거리시위, 비공식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공동체, 여성노동자들의 돌봄과 생존의 정치, 청년들의 플랫폼 저항 또한 오늘날 자본주의 노동이 만들어내는 현실적 투쟁 형태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때로 산발적이고 취약하며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취약성과 반복성 속에서 오늘날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이 형성된다. 들꽃 노동운동은 조직화 되어있지 않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이 포괄하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18. 더 나은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동아시아 노동운동이 이 전략자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스스로 유럽중심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변부주의이다. 주변부주의는 아시아 노동을 항상 부족한 것,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서구를 따라잡아야 할 것으로 만든다. 이 관점 속에서 아시아 노동운동은 스스로의 역사와 경험에서 전략을 찾지 못하고, 늘 다른 곳의 완성된 모델을 수입하려 한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노동이 아시아 노동이라면, 아시아 노동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다. 아시아 노동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가 실제로 조직하고 착취하는 노동의 정상적 형태이다. 불안정하고, 이주하며, 비공식적이고, 분절된 노동이야말로 오늘날 세계자본주의가 가장 광범하게 만들어내는 노동이다.

19.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은 단지 학술적 논쟁이 아니고 전략의 문제이다. 어떤 운동도 자신이 이해하는 역사보다 더 멀리 나아가기 어렵다. 우리가 동아시아 노동을 과거의 잔재로 이해한다면, 동아시아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미래 역시 서구의 과거를 따라잡는 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동아시아 노동운동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주체로 상상할 수 있다. 역사를 다시 써야 전략을 다시 쓸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의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서구 노동운동과 민주주의를 끝없이 공부할 시간에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과거를 다시 읽어야 한다. 이는 서구의 경험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서구를 보편적 모델로 삼고 동아시아를 그 결핍된 복사본으로 보는 인식론이다. 노동의 대륙 동아시아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

20. 그리고 그 길은 동아시아 민주노동운동과의 연대 없이는 열릴 수 없다. 동아시아 민주노동운동과 연대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 지지를 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의 임금투쟁, 중국과 베트남의 와일드캣 파업,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화, 홍콩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봉기, 인도네시아의 파업과 태국의 청년운동은 모두 별개의 지역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세계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노동의 조건에 맞서 민주주의를 다시 정의하려는 투쟁이다. 결국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세계 최대의 노동의 대륙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 온 투쟁과 연대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과거를 다시 쓰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다시 여는 일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서구의 완성된 제도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다. 동아시아 노동은 더 이상 유럽과 북미의 거울에 비친 결핍의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의 현재를 떠받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너머의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힘이다.